

국내 바이오 기술 미국 제약기업 이전

RNL생명과학·팬제노믹스, 자생식물 추출물질 개발 ... 잇따른 수출 대박

국내 연구진이 한반도 자생식물을 이용해 개발한 천연물질이 미국 제약기업 등에 거액에 수출되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바이오기업인 RNL생명과학(대표 라정찬)은 서울대 강경선 교수팀과 공동 연구 끝에 국내 자생식물인 복분자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신물질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 미국의 건강식품기업인 Sedona와 3년간 10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효능검증을 실시한 서울대 공중보건학 실험실은 복분자 추출물질(BHP9)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는 효소들(라이페이스알파-글루코시데이즈)을 억제함으로써 지방 등을 그대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분자 추출물의 다이어트 효과는 비교실험에서 시판중인 유명 비만치료제보다 뛰어났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미국 Sedona는 개발물질을 캡슐 형태의 <엔자이트림(EnzyTrim)>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 6월부터 미국 전역에 출시할 예정이며, RNL생명과학도 개발물질과 인진쑈 등을 섞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조만간 국내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복분자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한국독성학회지(6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기업 팬제노믹스의 진미림 박사와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김선영 교수팀도 과학기술부 자생식물이용개발사업단(단장 정혁)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국내 자생 야생과일에서 항알레르기 천연물질(PG102)을 개발해 미국 Efficas와 210만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개발물질을 쥐에 투여한 결과, 알레르기 체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혈중면역글로불린-E(IgE) 농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체내 면역력 관련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이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 쥐에게 투여하자 피부염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뚜렷했다.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는 최초 기술이전료 외에 추후 매출의 12.5%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5000만달러에서 최대 1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팬제노믹스 측은 내다봤다.

자생식물사업단 정혁 단장은 “바이오기업의 수출 계약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5/28>